

차별 경험이 외국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 신뢰와 평등 인식의 병렬매개효과와 포용성 인식의 조절효과-

김형민
(대진대학교)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의 매개효과 및 사회 포용성 인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국내 거주 외국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PLS-SEM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차별 경험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 포용성 인식은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조절효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조절된 매개구조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특히 사회 신뢰를 통한 간접효과는 사회 포용성 인식이 평균 수준과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

은 수준에서는 유의하였으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포용성 인식이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보다 조건에 따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차별 경험의 영향 구조를 다층적으로 규명하고, 포용성 인식의 역할을 재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차별 경험, 삶의 만족, 사회 신뢰, 사회 평등 인식, 사회 포용성 인식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재편 속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6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차 확대되고 있다(통계청 2024).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가 단일민족 중심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외국인의 사회적 적응과 삶의 질은 더 이상 주변적 문제가 아닌 핵심적인 사회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삶의 만족과 사회통합 수준은 노동시장 안정성, 사회적 신뢰, 공동체 응집력 등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OECD 2020).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가 단순한 인구 규모의 확대를 넘어 장기 체류와 정주의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삶의 만족은 개인적 적응의 결과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 장기적인 사회통합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특히 차별 경험이 사회에 대한 신뢰와 평등 인식을 약화시킬 경우, 그 영향은 개인의 주관적 안녕 저하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거리와 공동체 통합의 약화로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차별 경험이 어떠한 사회적 인식 경로를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이 어떠한 조건에서 강화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통합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

다. 기존 연구들은 차별 경험이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으며(Pascoe & Smart Richman 2009; Schmitt et al. 2014), 이러한 영향은 단순한 개인 수준을 넘어 사회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 인식과 같은 인지적 평가를 통해 확대될 수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Dinesen & Sønderskov 2015; Rothstein & Uslaner 2005). 또한 사회 신뢰와 평등 인식은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확인되어 왔으며(Diener, Oishi, & Tay 2018; Helliwell, Huang, & Wang 2014), 이는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다층적인 경로를 통해 작동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을 저해하고, 사회 신뢰와 공정성 인식을 약화시킨다는 관계는 기존 연구를 통해 상당 부분 확인되어 왔다. 따라서 차별 경험의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다시 검증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논의를 충분히 확장하기 어렵다. 보다 중요한 연구과제는 차별 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어떠한 조건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사회 포용성은 일반적으로 차별과 배제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긍정적 사회환경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사회를 포용적이라고 인식하는 개인이 실제 차별을 경험할 경우에는 기대와 경험 간의 불일치로 인해 오히려 사회에 대한 신뢰와 평등 인식이 더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사회 포용성 인식이 차별 경험의 영향을 완충하는지, 또는 반대로 강화하는지에 관한 실증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Colquitt et al. 2001; Tyler 2006).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 포용성 인식을 차별 경험의 영향을 변화시키는 핵심 조건변수로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사회 포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는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조건적 강화효과가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거쳐 삶의 만족에 이르는 간접경로로까지 확장되는지를 분석한다. 차별 경험의 직접효과와 사회 신뢰 및 사회 평등 인식의 매개효과는 이러한 조건부 영향구조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적 경로로 함께 분석한다.

본 연구의 독자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포용성 인식을 일

관되게 긍정적인 보호요인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차별 경험과 결합할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킬 수 있는 조건적 강화요인으로 재해석한다. 둘째, 이러한 강화효과가 차별 경험과 사회 신뢰 및 사회 평등 인식 간의 개별 관계에 그치지 않고, 삶의 만족에 이르는 간접효과와 크기까지 변화시키는 조절된 매개구조로 확장됨을 검증한다. 셋째, 포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실제 차별 경험 간의 불일치가 사회 신뢰와 평등 인식의 손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함으로써, 포용성과 차별의 관계를 정태적 수준이 아닌 조건적·과정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은 다문화사회 정책이 포용성에 대한 선언이나 인식 제고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인이 실제 생활에서 차별 감소와 공정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가설설정

2.1. 차별 경험과 삶의 만족

차별 경험은 개인이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식하는 주관적 경험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는지의 여부로 한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 경험은 차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빈도 및 강도를 포착하는 개념이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경험한 사실의 유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별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안녕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언어, 문화, 국적 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험은 사회적 적응뿐 아니라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삶의 만족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적 판단으로서 주관적 안녕감의 핵심 구성요소로 간주된다(Diener et al. 1985).

기존 연구들은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Schmitt et al.(2014)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지각된 차별은 다양한 사회집단에서 삶의 만족과 심리적 안녕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Pascoe and Smart Richman(2009) 또한 차별 경험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정서적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이 개인의 심리적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로를 통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확인된다. 문화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사회적 배제는 적응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는 삶의 만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Berry 1997). 특히 차별 경험은 개인의 사회적 소속감과 안정감을 약화시켜, 자신이 속한 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외국인의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관계가 한국 사회에서도 유효함을 보여준다(장태훈·주유선 2025).

종합하면, 차별 경험은 개인의 심리적 안정성과 사회적 소속감을 저해함으로써 삶의 만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1: 차별 경험은 삶의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차별 경험, 사회 신뢰, 사회 평등 인식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서로 구별되는 사회적 인식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 신뢰는 한국 사회 전반이 신뢰할 만하고 예측 가능하게 작동한다고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일 기관에 대한 신뢰와는 구분된다. 사회 평등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고 있다고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전자가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 가능성을 반영한다면, 후자는 사회구조와 기회의 평등성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다. 이러한 인식은 개인의 사회적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불평등과 불공정에 대한 경험은 사회 전반에 대한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lesina & La Ferrara 2005;

Delhey & Newton 2005; Uslaner 2012).

차별 경험은 이러한 사회 인식을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복적인 차별과 불공정한 대우는 타인과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믿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Rothstein · Stolle(2008)는 차별과 불평등 경험이 일반화된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임을 지적하였으며, Dinesen · Hooghe(2010) 역시 이주민의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차별이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사회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시사한다.

차별 경험은 사회 평등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공정한 대우가 반복될수록 사회가 특정 집단에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Alesina · La Ferrara(2005)는 불평등 인식이 사회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였으며, Wilkinson · Pickett(2009)는 불평등과 배제 경험이 사회 인식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차별 경험이 개인적 사건을 넘어 사회 구조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주민 맥락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된다. 차별 경험은 사회로부터의 배제 인식을 강화하고, 이는 사회 신뢰와 공정성 인식을 동시에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인식이 사회 신뢰와 공정성 인식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권영은 2025; 김은미 2025).

종합하면, 차별 경험은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모두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2: 차별 경험은 사회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차별 경험은 사회 평등 인식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의 매개역할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은 개인이 사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반영하는 핵심 인식 변수로,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사회 신뢰는 타인과 사회 제도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며, 이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협력을 촉진하고 개인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Helliwell & Putnam 2004). 또한 사회 평등 인식은 사회가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 개인이 사회를 정당하고 안정적인 체계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Alesina & La Ferrara 2005).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은 서로 관련될 수 있으나 개념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어느 한 변수가 다른 변수에 반드시 선행한다는 인과적 순서를 가정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변수를 차별 경험과 삶의 만족 사이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병렬매개변수로 설정한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 신뢰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Helliwell(2003)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인 신뢰가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제시하였으며, Bjørnskov(2003) 역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통해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삶의 만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신뢰가 개인이 사회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삶의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사회 평등 인식 역시 삶의 만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개인이 사회를 공정하고 평등한 구조로 인식할수록 사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강화되며, 이는 삶의 만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Oishi · Kesebir · Diener(2011)은 불평등 인식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으며, Wilkinson · Pickett(2009) 또한 사회적 불평등 수준이 개인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사회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은 각각 삶의 만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

은 가설을 설정한다.

H4: 사회 신뢰는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 사회 평등 인식은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앞선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차별 경험은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인식 변수들은 다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차별 경험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도 개인의 사회적 경험이 사회 인식을 통해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가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함이 보고되고 있다(Helliwell & Putnam 2004; Uslander 2012).

따라서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은 차별 경험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H6: 사회 신뢰는 차별 경험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H7: 사회 평등 인식은 차별 경험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2.4. 사회 포용성 인식의 조절역할

본 연구에서 사회 포용성 인식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가 자신에게 한국인과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고 평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객관적인 포용성 수준이 아니라, 외국인이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한 주관적인 사회평가이며, 사회통합과 사회적 응집을 설명하는 핵심 인식 변수로 간주된다. 포용적인 사회는 구성원 간 차이를 인정하고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며, 이러한 환경은 개인이 사회를 공정하고 정당한 체계로 인식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Ager

& Strang 2008; OECD 2015). 또한 사회 포용성 인식은 개인이 사회에 대해 형성하는 기대 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이는 사회적 경험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Uslaner 2012).

사회 포용성 인식이 차별 경험의 효과를 변화시키는 논리는 상대적 박탈 관점과 절차적 공정성 관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상대적 박탈 관점에서는 개인이 정당하다고 기대한 기준과 실제로 경험한 대우 사이의 격차가 클수록 박탈감과 부정적 평가가 강해질 수 있다고 본다(Smith et al. 2012). 또한 절차적 공정성 관점에서는 공정하고 존중받는 대우에 대한 기대가 위반될 경우 사회와 제도의 정당성 및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Tyler 2000; Tyler 2006). 따라서 사회 포용성 인식이 높은 외국인은 한국 사회가 자신을 공정하고 포용적으로 대우할 것이라는 기대 수준도 높게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차별을 경험하면 기대와 경험 사이의 불일치가 더 크게 지각되고, 그 결과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이 더욱 크게 저하될 수 있다. 반면 사회 포용성 인식이 낮은 경우에는 차별 경험이 기존의 부정적 기대와 일치하여 추가적인 인식 손상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사회 신뢰와의 관계에서 특히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회 신뢰는 개인이 사회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체계로 인식할 때 형성되는데, 포용성 인식이 높은 개인일수록 이러한 기대 수준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Delhey & Newton 2005). 따라서 차별 경험이 발생할 경우 이는 기존의 기대와 충돌하면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더욱 크게 훼손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사회 포용성이 낮다고 인식될 경우에는 차별 경험이 기존 인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회 평등 인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절효과가 예상된다. 개인이 사회를 포용적이고 공정한 체계로 인식할수록 사회적 규범과 제도가 평등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강화되며, 이러한 기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별 경험이 발생할 경우 이를 구조적 불공정성의 증거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Tyler 2000).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 경험은 개인의 공정성 인식과 사회 평가를 동시에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Wilkinson & Pickett 2009), 이는 차별 경험이 사회 평등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사회적 포용성 인식이 개인의 사회 인식 형성과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차별 경험과 사회 인식 간 관계에서 포용성 인식이 중요한 조건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양근숙 2025).

종합하면, 사회 포용성 인식은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포용성을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으로 보는 일반적인 관점과 상반되는 조건적 예측으로서, 이하에서 제시하는 H8과 H9는 본 연구의 핵심 가설에 해당한다. 반면 H1~H7은 이러한 조건적 강화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적 영향경로를 구성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사회 포용성 인식이 차별 경험의 간접효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H8: 사회 포용성 인식은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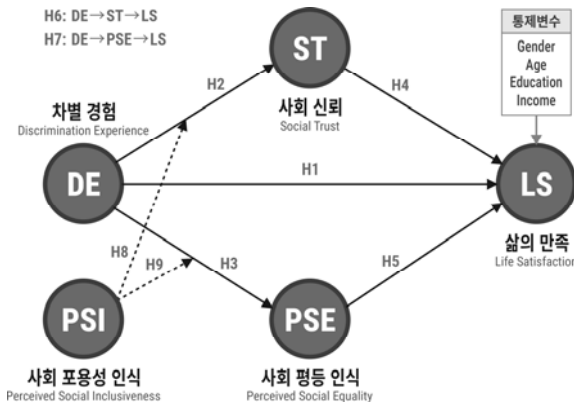
H9: 사회 포용성 인식은 차별 경험이 사회 평등 인식에 미치는 부(-)의 영향을 강화할 것이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본 연구는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사회 신뢰 및 사회 평등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를 기초적 경로로 설정하고, 사회 포용성 인식이 이러한 영향구조를 조건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 포용성 인식이 차별 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기보다 강화하는지, 나아가 이러한 강화효과가 두 병렬매개경로를 통해 삶의 만족으로까지 확장되는지가 본 연구의 핵심 검증 대상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가설과 조건부 영향구조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 분석변수의 구성 및 구체적인 분석절차를 제시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앞 장의 이론적 논의에서 도출한 H1~H9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간접 경로와 사회 포용성 인식의 조건적 강화효과를 하나의 통합적 연구모형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차별 경험을 독립변수로, 삶의 만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매개변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 포용성 인식은 차별 경험과 사회 신뢰 및 사회 평등 인식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사회 포용성 인식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통한 간접 효과의 크기를 조건적으로 변화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은 삶의 만족과 관련될 수 있는 대표적인 개인적·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므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Diener et al. 2018). 이들 변수는 삶의 만족에 직접 연결하여, 인구통계적·사회경제적 차이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차별 경험, 사회 신뢰 및 사회 평등 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고유한 영향을 검증하였다. 통제변수의 범주별 분포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변수 간 관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3.2. 변수의 구성 및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의 국내 거주 외국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분석변수를 구성하고 조작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특정 성별이나 체류유형에 한정하지 않고 국내 거주 외국인 전체로 설정하였다. 이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 등 특정 하위집단의 고유한 경험을 규명하기보다, 다양한 체류배경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거쳐 삶의 만족에 이르는 조건부 영향구조를 전체 표본 수준에서 검증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사는 사회 인식, 가치관, 삶의 질 등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전국 단위 조사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사회적 경험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자료로 평가된다. 특히 사회 신뢰, 사회 평등 인식, 삶의 만족과 같은 변수는 기존 연구에서도 대규모 사회조사 자료를 통해 측정되어 널리 활용되어 왔다(Delhey & Newton 2005; Helliwell 2003).

본 연구의 분석변수는 조사표의 원문 문항 가운데 각 이론적 개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문항을 선별하여 조작화하였다. 차별 경험은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경험한 여부(Q5)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사회 신뢰(Q17)와 사회 평등 인식(Q18), 삶의 만족(Q3)은 각각 해당 개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단일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사회 포용성 인식은 한국 사회의 포용성과 관련된 세 문항(Q29-3, Q29-5, Q29-6)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대규모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에서 조사 원문 문항을 이론적 개념에 대응시켜 분석변수로 조작화하는 일반적인 접근과 일치한다(OECD 2013).

한편 본 연구의 일부 분석변수는 단일 문항(single-item)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일반적으로 다항목 척도가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단일지표 역시 특정 조건 하에서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ergkvist · Rossiter(2007)는 단일 문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을 측정하는 경우 다항목 척도와 유사한 수준의 예측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과 같은 단일 차원적 구성개념은 단일 문항으로도 안정적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실제로 단일 문항 척도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Cheung & Lucas 2014; Dolan, Peasgood, & White 2008).

PLS-SEM 맥락에서도 단일지표의 활용은 제한적이지만 허용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Hair et al.(2019)은 연구모형이 복잡하거나 자료 수집에 제약이 있는 경우, 개념을 대표하는 단일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실증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이 공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 측정문항의 선택은 연구자가 임의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설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므로, 단일지표를 활용하는 접근은 경험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방법이다.

〈표 1〉 분석변수의 구성

구성개념	조사문항	문항 내용(요약)	응답척도
차별 경험 (Discrimination Experience, DE)	Q5	외국인으로서 차별 경험 여부	이분형
사회 신뢰 (Social Trust, ST)	Q17	한국 사회 신뢰 수준	10점 Likert
사회 평등 인식 (Perceived Social Equality, PSE)	Q18	한국 사회 평등 수준	10점 Likert
삶의 만족 (Life Satisfaction, LS)	Q3	삶 전반 만족 수준	10점 Likert
사회 포용성 인식 (Perceived Social Inclusiveness, PSI)	Q29-3	한국인과의 관계 기회 충분성	5점 Likert
	Q29-5	다양성 존중 정도	5점 Likert
	Q29-6	기회 평등 수준	5점 Likert

종합하면, 본 연구는 공공조사 원자료의 문항을 바탕으로 각 구성개념을 분석변수로 조작화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 구성과 응답척도는 〈표 1〉

에 제시하였다. 일부 분석변수가 단일 문항으로 구성된 한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타당성 근거를 통해 보완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제안된 연구모형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PLS-SEM)을 활용하였다. PLS-SEM은 복잡한 연구모형과 매개 및 조절효과를 동시에 분석하는 데 적합하며, 비교적 표본의 분포 가정에 대한 제약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Hair et al. 2019). 특히 본 연구와 같이 다수의 경로와 매개·조절 구조를 포함하는 모형의 경우 PLS-SEM은 효율적인 분석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은 SmartPLS 4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Ringle, Wende, & Becker 2024). 먼저 측정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평가한 후 구조모형을 분석하였으며, 경로계수와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0개의 부트스트랩 표본을 생성하였다. 유의성 검정에는 양측검정과 5% 유의수준을 적용하였으며, 95% 백분위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함께 산출하였다.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직접효과 또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회 포용성 인식의 조절효과는 차별 경험과 사회 포용성 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여 검증하였다. 상호작용항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사회 포용성 인식이 차별 경험과 사회 신뢰 또는 사회 평등 인식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아가 사회 포용성 인식이 차별 경험의 간접효과를 조건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SmartPLS 4의 PROCESS 모듈을 이용한 추가분석을 수행하였다. PROCESS 분석은 회귀 기반 조건부 과정분석으로 수행하였으며, 사회 포용성 인식의 세 측정문항은 동일가중 평균점수로 구성하였다. 상호작용항의 해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속형 변수는 평균중심화하였으며, 5,000회 부트스트래핑과 95% 백분위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적용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는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부

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 포용성 인식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수준(Mean-1 SD), 평균 수준(Mean),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수준(Mean+1 SD)에서 조건부 간접효과를 산출하였다. 각 수준에서 산출된 조건부 간접효과의 95%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해당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연구결과

앞 장에서 제시한 연구모형과 분석절차에 따라, 본 장에서는 먼저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고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이어 H1~H9의 검증 결과를 제시한 후, 사회 포용성 인식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통한 간접효과의 크기를 조건적으로 변화시키는지를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확인한다. 결과의 해석에서는 H1~H7의 기초적 영향경로를 토대로 H8·H9의 조건적 강화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본 연구의 핵심 발견으로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4.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통제변수 분포

〈표 2〉는 본 연구에 활용된 표본의 주요 특성과 통제변수의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 표본은 국내 거주 외국인 1,020명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주제와 직접 관련된 이주 특성을 살펴보면, 체류자격은 정주형 비자가 47.1%로 가장 많았고, 동포가 27.3%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한국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응답자가 53.5%로 절반을 넘었으며, 5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는 전체의 83.7%에 달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단기 체류자보다 한국 사회를 장기간 경험해 온 외국인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이 평가한 사회 신뢰, 사회 평등 및 사회 포용성 인식은 한국 사회에서 축적된 생활경험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체류자격과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를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집단별 차이로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통제변수 분포

구분	항목	빈도	%	구분	항목	빈도	%
성별	남자	398	39.0	체류 자격	전문인력(E1~E7)	86	8.4
	여자	622	61.0		비전문인력(E9, H2)	62	6.1
연령	19~29세	179	17.5		유학(D2, D4)	62	6.1
	30~39세	395	38.7		동포(F4)	278	27.3
	40~49세	265	26.0		정주형 (F2, F5, F6, F24, F527)	480	47.1
	50대 이상	181	17.7		기타(G-1 등)	52	5.1
지역	서울	330	32.4	결혼 상태	미혼	338	33.1
	인천/경기	299	29.3		사실혼- 동거 등	49	4.8
	대전/충청/세종	141	13.8		기혼- 결혼 생활 중	575	56.4
	광주/전라	55	5.4		기혼- 사별, 이혼, 별거 등	58	5.7
	대구/경북	59	5.8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34	3.3
	부산/울산/경남	91	8.9		고등학교 졸업	256	25.1
	강원	29	2.8		대학교 재학 중 또는 졸업	440	43.1
	제주	16	1.6		대학원 졸업	290	28.4
소득	200만원 미만	157	15.4	한국 거주 기간	3년 미만	48	4.7
	200만원~ 299만원	294	28.8		3-5년 미만	118	11.6
	300만원~ 499만원	313	30.7		5-10년 미만	308	30.2
	500만원~ 699만원	136	13.3		10년 이상	546	53.5
	700만원 이상	120	11.8	합계		1,020	100.0

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은 구조모형에서 삶의 만족에 대한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체류자격, 한국 거주기간, 지역 및 결혼상태는 표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기술통계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의 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61.0%, 남성이 39.0%였으며, 연령은 30~39세가 38.7%, 40~49세가 26.0%로 30~40대가 전체의 64.7%를 차지하였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이 43.1%, 대학원 졸업이 28.4%로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71.5%였으며, 소득은 200만~299만원이 28.8%, 300만~499만원이 30.7%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사회경제적 배경요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경로의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그 밖에 지역은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각 32.4%와 29.3%로 수도권 거주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결혼상태는 현재 결혼생활 중인 응답자가 5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역과 결혼상태는 표본의 전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로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는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않았다.

4.2. 측정모형 평가

〈표 3〉은 본 연구에서 다항목으로 구성된 사회 포용성 인식(PSI)의 측정모형 평가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모든 측정문항의 외부적재치가 0.7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크론바흐 알파(0.806), ρ_a (0.820), ρ_c (0.886) 모두 기준치인 0.70을 상회하였으며, 평균분산추출(AVE) 값 역시 0.721로 기준치인 0.50을 상회하여 내적 일관성과 집중타당도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4〉는 구성개념 간 변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HTMT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 결과, 모든 구성개념 간 HTMT 값이 기준치인 0.85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가장 높은 값은 PSI와 ST 간의 0.617로 나타났으나, 이는 기준치를 충분히 하회하는 수준으로 개념 간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모두 수용 가능한 수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측정모형 평가 결과

구성 개념	측정 변수	개별 측정변수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타당도
		외부적재치	크론바흐 알파	rho_a	rho_c		AVE
		≥0.70	≥0.70	≥0.70	≥0.70		≥0.50
PSI	PSI1	0.775	0.806	0.820	0.886		0.721
	PSI2	0.887					
	PSI3	0.882					

주: 단일지표 변수는 신뢰도 및 타당도 산출 대상이 아니므로, 본 측정모형 평가 결과표에서 제외함.

〈표 4〉 HTMT 비율

구성개념	1	2	3	4	5	6
DE						
LS	0.204					
PSE	0.275	0.406				
PSI	0.303	0.279	0.610			
ST	0.228	0.468	0.617	0.420		
PSI x DE	0.246	0.145	0.326	0.723	0.206	

4.3. 구조모형 평가

〈표 5〉는 구조모형 평가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모든 경로의 VIF 값이 1.089~1.790 범위로 나타나 기준치인 5를 크게 하회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설명력(R^2)을 살펴보면, 사회 신뢰(ST)는 0.164, 사회 평등 인식(PSE)은 0.324, 삶의 만족(LS)은 0.295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은 종속변수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예측적 적합성($Q^2_{predict}$) 역시 모든 내생변수에서 양(+)의 값을 보여 모형의 예측력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효과크기(f^2)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로에서 0.02 이상의 값을 보여 최소 수준 이상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차별

경험(DE)이 삶의 만족(LS)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경우 f^2 값이 0.007로 기준치(0.02)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삶의 만족과 같은 복합적 결과변수는 단일 요인의 직접효과보다는 매개경로를 포함한 간접효과를 통해 설명되는 경향이 강하며(Hair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이라는 매개변수를 포함한 구조 속에서 효과가 분산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PLS-SEM에서는 복수의 매개변수를 포함한 모형에서 특정 직접 경로의 효과크기가 작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Hair et al. 2019; Nitzl, Roldan, & Cepeda 2016), 이는 해당 경로의 이론적 중요성을 부정하기보다는 영향력이 간접경로를 통해 보다 크게 발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다중공선성, 설명력, 예측력 및 효과 크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표 5〉 구조모형 평가 결과

경로	VIF	f^2	R^2	$Q^2_{predict}$
DE → ST	1.089	0.022	0.164	0.148
DE → PSE	1.089	0.027	0.324	0.306
DE → LS	1.104	0.007	0.295	0.107
ST → LS	1.671	0.077		
PSE → LS	1.790	0.045		

4.4. 가설검정 결과

〈표 6〉은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차별 경험(DE)이 삶의 만족(LS)에 미치는 직접효과(H1)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 경험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을 저하시킨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Schmitt et al. 2014; Verkuyten 2008), 사회적 배제 경험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의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ST)와 사회 평등 인식(PSE)에 미치는 영향(H2, H3) 역시 모두 유의한 부(-)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 경험이 제도 및 타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 구조에 대한 불공정 인식을 강화한다는 연구와 일관된 결과이다(Dinesen & Sønderskov 2015; Rothstein & Uslaner 2005). 특히 차별 경험이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구조적 공정성 인식까지 동시에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H4, H5)은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이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Helliwell et al. 2014; Oishi et al. 2011). 즉, 개인의 주관적 삶의 만족은 단순한 개인적 요인을 넘어 사회적 인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H6, H7),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은 모두 차별 경험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차별 경험이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약화시키는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 경험의 영향이 단일 경로가 아닌 다중 매개 구조를 통해 작동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를 확장하는 의미를 갖는다(Pascoe & Smart Richman 2009).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사회 포용성 인식(PSI)은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8, H9). 특히 상호작용항의 계수가 부(-)로 나타난 점은, 사회 포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오히려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포용성이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높은 포용성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공정성 인식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Colquitt et al. 2001; Tyler 2006).

마지막으로 통제변수 중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이 삶의 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사회경제적 자원이 삶의 질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주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Diener et al. 2018). 반면 성별과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H1~H9가 모두 지지되었다. 특히 사회 포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강화되는 조건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이는 차별 경험의 영향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통한 매개구조뿐 아니라, 사회 포용성 인식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건부 구조로 작동함을 의미하며, 이어지는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의 기초를 제공한다.

〈표 6〉 가설검정 결과

가설	경로	계수	표준오차	t 값	p 값	결과
H1	DE → LS	-0.147	0.059	2.507*	0.012	지지
H2	DE → ST	-0.285	0.061	4.695***	0.000	지지
H3	DE → PSE	-0.283	0.054	5.236***	0.000	지지
H4	ST → LS	0.303	0.038	8.054***	0.000	지지
H5	PSE → LS	0.238	0.038	6.211***	0.000	지지
H6	DE → ST → LS	-0.086	0.021	4.082***	0.000	지지
H7	DE → PSE → LS	-0.067	0.018	3.797***	0.000	지지
H8	PSI × DE → ST	-0.139	0.067	2.064*	0.039	지지
H9	PSI × DE → PSE	-0.119	0.060	1.968*	0.049	지지
통제	Gender → LS	-0.079	0.054	1.474	0.141	-
	Age → LS	-0.018	0.027	0.687	0.492	
	Education → LS	0.122	0.029	4.155***	0.000	
	Income → LS	0.170	0.028	5.983***	0.000	

주: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및 소득은 삶의 만족에 대한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 p<.05, *** p<.001

4.5. 추가분석: 조절된 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martPLS 4의 PROCESS 모듈을

활용하였다. 분석에서는 연속형 변수를 평균중심화하고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95% 백분위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조절된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매개지수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조건부 간접효과는 사회 포용성 인식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수준, 평균 수준 및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수준에서 각각 산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과 <표 8>에 제시하였다.

먼저 <표 7>의 매개지수를 살펴보면, 사회 포용성 인식(PSI)은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ST) 및 사회 평등 인식(PSE)을 통해 삶의 만족(LS)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DE → ST → LS 경로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0.141(신뢰구간: [-0.257, -0.029])로, DE → PSE → LS 경로는 -0.101(신뢰구간: [-0.190, -0.017])로 나타나 모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 포용성 인식이 차별 경험의 간접효과 크기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조절요인임을 의미한다.

<표 7> 조절된 매개지수

매개 경로	조절변수	조절된 매개지수	Boot SE	Boot LLCI	Boot ULCI
DE → ST → LS	PSI	-0.141	0.069	-0.257	-0.029
DE → PSE → LS	PSI	-0.101	0.053	-0.190	-0.017

주: 조절된 매개효과는 SmartPLS 4의 PROCESS 모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5,000회 부트스트래핑과 95% 백분위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적용하였다. Boot LLCI와 Boot ULCI는 각각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의 하한과 상한을 의미하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표 8>의 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보면 보다 흥미로운 패턴이 확인된다. 먼저 DE → ST → LS 경로의 경우, 조건부 간접효과는 사회 포용성 인식이 평균 수준(Mean)과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수준(+1 SD)에서는 모두 유의한 부(-)의 값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 포용성 인식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수준(-1 SD)에서는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미치는 부정적 간접효과가 사회 포용

성 인식이 평균 이상의 수준에서 뚜렷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표 8〉 조건부 간접효과

매개 경로	조절변수	조건부 간접효과	Boot SE	Boot LLCI	Boot ULCI
DE → ST → LS	PSI at +1 SD	-0.353	0.082	-0.525	-0.199
	PSI at Mean	-0.237	0.054	-0.346	-0.132
	PSI at -1 SD	-0.122	0.074	-0.265	0.023
DE → PSE → LS	PSI at +1 SD	-0.285	0.067	-0.423	-0.162
	PSI at Mean	-0.202	0.044	-0.291	-0.119
	PSI at -1 SD	-0.118	0.058	-0.236	-0.008

주: 조건부 간접효과는 사회 포용성 인식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수준(-1 SD), 평균 수준(Mean),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수준(+1 SD)에서 산출하였다. 5,000회 부트스트래핑과 95% 백분위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을 적용하였으며,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조건부 간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DE → PSE → LS 경로에서는 사회 포용성 인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구간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포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간접효과의 절대값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는 사회 평등 인식 경로 역시 포용성 인식에 의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확인된 조절효과(H8, H9)와 일관된 해석을 제공한다. 즉, 사회 포용성 인식은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차별 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강화 효과는 단순한 직접경로에 국한되지 않고 매개경로를 통해서도 확장된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포용성 인식이 높은 개인일수록 사회를 공정하고 포용적인 체계로 기대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제 차별 경험이 발생할 경우 그 괴리가 더욱 크게 인식되어 사회 신뢰 및 사회 평등 인식이 더 크게 훼손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신뢰 경로에서 사회 포용성 인식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수준(-1 SD)에서는 조건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은, 포용성에 대한 기대 수

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차별 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를 거쳐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간접경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사회 포용성 인식이 차별 경험의 영향을 완충하는 보호요인이라기보다는,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그 부정적 효과를 증폭시키는 조건적 강화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5. 결론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결과는 사회 포용성 인식이 차별 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강화하는 조건변수로 작용하였다는 점이다. 사회 포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났으며, H8과 H9가 모두 지지되었다. 이는 포용적인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언제나 차별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차별 경험과 결합할 경우 오히려 사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러한 조건적 강화효과는 차별 경험에서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으로 이어지는 1단계 조절경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사회 포용성 인식은 차별 경험이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거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간접경로의 크기를 모두 유의하게 변화시켰다. 특히 사회 신뢰 경로에서는 포용성 인식이 평균 수준과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 평등 인식 경로에서는 세 수준 모두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포용성 인식이 높을수록 부정적 간접효과의 절대값이 증가하였다. 이는 사회 포용성 인식이 차별 경험에 대한 단순한 배경 인식이 아니라, 차별 경험이 사회적 인식의 손상과 삶의 만족 저하로 전환되는 과정 전체를 조건화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 포용성에 대한 기대가 높은 개인일수록 실제 차별 경험을 기존 기대와 더 크게 충돌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포용성 인식과 차별 경험 간의 불일치는 사회가 공정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믿음을 더욱 크게 훼손하고, 그 결과 삶의 만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본 연구가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를 직접 측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설명은 실증결과에 근거한 해석적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차별 경험은 삶의 만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H1~H7의 결과는 차별 경험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신뢰와 평등 인식을 손상시키는 다층적 경로를 통해 작동한다는 기존 논의를 재확인한다. 동시에 이들 기초적 경로는 사회 포용성 인식의 조건적 강화효과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삶의 만족으로 확장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 포용성 인식이 차별 경험의 부정적 영향을 일률적으로 완충하는 보호요인이 아니라, 특정 조건에서는 오히려 그 영향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포용성을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사회적 자원으로 간주해온 기존 관점을 보완하고, 포용성의 효과가 개인의 실제 경험과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 포용성 인식의 조건적 강화효과가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에 대한 직접적인 조절효과에 그치지 않고, 삶의 만족에 이르는 두 간접경로로까지 확장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포용성 인식이 차별 경험의 특정 경로만을 조절하는 변수가 아니라, 차별 경험이 사회적 인식의 손상을 거쳐 주관적 안녕감 저하로 전환되는 과정 전반을 조건화하는 변수임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 신뢰 경로에서 포용성 인식이 평균 수준과 평균보다 1표준편차 높은 수준에서는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평균보다 1표준편차 낮은 수준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차별 경험의 영향이 포용성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는 포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실제 차별 경험 간의

불일치가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의 손상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이는 차별의 영향을 경험 자체의 강도만으로 설명하기보다, 개인이 기존에 형성한 사회적 기대와 실제 경험 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 신뢰와 사회 평등 인식의 병렬매개효과를 통해 이러한 조건적 강화효과가 삶의 만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차별 경험 연구를 직접효과 중심의 접근에서 조건부 과정모형으로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 사회 정책은 포용성에 관한 선언, 홍보 또는 인식 제고에 머무르지 않고 외국인이 일상생활과 제도 이용 과정에서 차별 감소와 절차적 공정성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는 포용성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가 표방하는 포용적 가치와 외국인이 실제로 경험하는 차별 사이의 불일치가 클 경우 사회 신뢰와 삶의 만족이 더욱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의 성과는 포용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뿐 아니라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및 지역사회 관계에서의 실제 차별 경험이 감소하였는지를 함께 기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포용성 인식 수준에 따라 차별 경험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인식과 경험을 함께 파악하는 세분화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 사회의 포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차별을 경험한 집단은 기대와 경험 간의 불일치가 클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별사건에 대한 신속한 구제, 공정한 절차 안내 및 제도적 신뢰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는 포용성 인식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포용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실제 제도 및 생활환경의 일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본 연구는 체류자격, 성별, 국적 및 거주기간 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므로, 모든 외국인 집단에서 동일한 영향구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책 적용에서도 외국인을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하기보다, 각 집단의 체류목적과 생활환경 및 차별 경험의 특성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외국인 지원기관 간의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는

차별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공통 지침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외국인 지원기관은 다국어 상담창구, 차별사례 접수 및 사후지원 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고용기관, 교육기관 및 행정기관은 차별 예방 교육과 이의제기 절차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고, 정책성과를 단순한 사업 참여자 수가 아니라 차별 경험의 감소, 구제절차의 접근성과 처리 만족도, 절차적 공정성 및 사회 신뢰의 변화 등을 통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가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를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방안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정책적 제안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수 간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추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차별 경험과 사회적 인식 간의 동태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요 변수들이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측정의 정교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항목 척도를 활용하여 구성개념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개인의 인식 수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제도적 환경이나 지역사회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층모형 등을 활용하여 개인 수준과 구조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넷째, 본 연구는 체류자격, 성별, 국적 및 거주 기간 등이 서로 다른 국내 거주 외국인을 하나의 분석대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특정 집단의 차별 경험이 지닌 맥락적 특수성과 외국인 집단 간의 차이를 충분히 규명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 및 재외동포 등으로 연구대상을 구체화하거나, 주요 집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차별 경험의 영향구조가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심층면접이나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의 질적 자료를 결합한 혼합연구를 통해, 차별 경험과 포용성에 대한 기대 간의 괴리가 형성되고 해석되는 구체적인 과정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차별 경험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인식 구조와 포용성 인식이라는 맥락 속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특히 포용성 인식이 상황에 따라 차별의 부정적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발견은 향

후 관련 연구와 정책 논의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권영은(2025). 프레이밍과 접촉 이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민자 사회통합 인식,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20, 25-52쪽.
- 김은미(2025).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인식이 공정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8(3), 5-36쪽.
- 양근숙(2025). 결혼이주여성이 체감하는 사회적 포용성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20, 151-175쪽.
- 장태훈·유우선(2025). 결혼이주여성의 마이크로그레션 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8(2), 217-257쪽.
- 통계청(2024).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대전: 통계청.
- Ager, A., & Strang, A.(2008). Understanding integration: A conceptual framework. *Journal of Refugee Studies*, 21(2), pp.166-191.
- Alesina, A., & La Ferrara, E.(2005). Preferences for redistribution in the land of opportunit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5-6), pp.897-931.
- Bergkvist, L., & Rossiter, J. R.(2007). The predictive validity of multiple-item versus single-item measures of the same constru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4(2), pp.175-184.
- Berry, J. W.(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pp.5-34.
- Bjørnskov, C.(2003). The happy few: Cross-country evidence on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Kyklos*, 56(1), pp.3-16.
- Cheung, F., & Lucas, R. E.(2014). Assessing the validity of single-item life satisfaction measures: Results from three large samples. *Quality of Life Research*, 23(10), pp.2809-2818.
- Colquitt, J. A., Conlon, D. E., Wesson, M. J., Porter, C. O., & Ng, K. Y.(2001). Justice at the millennium: A meta-analytic review of 25 years of organizational justice resea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3), pp.425-445.
- Delhey, J., & Newton, K.(2005). Predicting cross-national levels of social

- trust: global pattern or Nordic exceptionalism?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4), pp.311-327.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pp.71-75.
- Diener, E., Oishi, S., & Tay, L.(2018). Advances in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Nature Human Behaviour*, 2(4), pp.253-260.
- Dinesen, P. T., & Hooghe, M.(2010).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The acculturation of generalized trust among immigrants in Western Europe.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44(3), pp.697-727.
- Dinesen, P. T., & Sønderskov, K. M.(2015). Ethnic diversity and social trust: Evidence from the micro-contex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0(3), pp.550-573.
- Dolan, P., Peasgood, T., & White, M.(2008). Do we really know what makes us happy? A review of the economic literature 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1), pp.94-122.
- Hair, J. F., Hult, G. T. M., Ringle, C. M., & Sarstedt, M.(2019). *A primer on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elliwell, J. F.(2003).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ing*, 20(2), pp.331-360.
- Helliwell, J. F., Huang, H., & Wang, S.(2014). Social capital and well-being in times of crisi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5(1), pp.145-162.
- Helliwell, J. F., & Putnam, R. D.(2004). The social context of well-being.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pp.1435-1446.
- Nitzl, C., Roldan, J. L., & Cepeda, G.(2016). Mediation analysis in partial least squares path modeling: Helping researchers discuss more sophisticated models.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116(9), pp.1849-1864.
- OECD(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Paris, France: OECD Publishing.
- OECD(2015). *In it together: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Paris, France: OECD Publishing.

- OECD(2020).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20*. Paris, France: OECD Publishing.
- Oishi, S., Kesebir, S., & Diener, E.(2011). Income inequality and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22(9), pp.1095-1100.
- Pascoe, E. A., & Smart Richman, L.(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pp.531-554.
- Ringle, C. M., Wende, S., & Becker, J.-M.(2024). SmartPLS 4. Bönningstedt: SmartPLS.
- Rothstein, B., & Stolle, D.(2008). The state and social capital: An institutional theory of generalized trust. *Comparative Politics*, 40(4), pp.441-459.
- Rothstein, B., & Uslaner, E. M.(2005). All for all: Equality, corruption, and social trust. *World Politics*, 58(1), pp.41-72.
- Schmitt, M. T., Branscombe, N. R., Postmes, T., & Garcia, A.(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pp.921-948.
- Smith, H. J., Pettigrew, T. F., Pippin, G. M., & Bialosiewicz, S.(2012). Relative deprivation: A theoretical and meta-analytic review.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3), pp.203-232.
- Tyler, T. R.(2000). Social justice: Outcome and procedur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5(2), pp.117-125.
- Tyler, T. R.(2006). *Why people obey the law* (2nd e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slaner, E. M.(2012). *Segregation and mistrust: Diversity, isolation, and social cohes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rkuyten, M.(2008). Life satisfaction among ethnic minorities: The role of discrimination and group identific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3), pp.391-404.
- Wilkinson, R. G., & Pickett, K.(2009). *The spirit level: Why greater equality makes societies stronger*. London, England: Allen Lane.

필자 소개

성 명 김형민

소 속 대진대학교 창업지원단 조교수

주 소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대진대학교 생활과학관 409

전자우편 bossmin90@daejin.ac.kr

Abstract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Foreign Residents - Mediation and Moderation by Social Trust, Social Equality, and Social Inclusiveness -

Kim, Hyeong-min
(Daeji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perceived discrimination affects life satisfaction through social trust and perceived social equality, and whether perceived social inclusiveness moderates these relationships. Using the foreign-resident sample from the 2025 Korean Survey on Consciousness and Values and PLS-SEM, the results show that discrimination reduces life satisfacti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Perceived social inclusiveness strengthens these negative effects, as confirmed by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The indirect effect through social trust was significant at the mean and at +1 SD of inclusiveness, but not at -1 S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erceived inclusiveness may function as a conditional amplifier rather than a buffer.

[Key words] Perceived discrimination, Life satisfaction, Social trust, Perceived social equality, Perceived social inclusiveness

투고일 2026. 05. 29 / 심사일 2026. 07. 13 / 게재확정일 2026. 07. 19
--